

보도시점 : 2023. 8. 16.(수) 06:00 이후(8. 16.(수) 석간) / 배포 : 2023. 8. 14.(월)

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크게 준다

- 국제협력 기반 ‘신(新)항공교통 흐름관리’ 운영으로 지상지연 70% 감소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(新)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□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다낭공항으로 운항*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(연간 8,700여편)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**으로 항공사와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.

* 다낭까지 비행구간 관련 국가 : 한국→일본→대만→홍콩→중국→베트남

** 지상 지연시간 : 일평균 273분(항공기 1편당 최소 12분에서 최대 100분)

○ 이에, 국토교통부(항공교통본부)는 항공기 간 ‘단순 시간분리’*에서 ‘목적공항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’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을 전환하여,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공적으로 흐름관리 시범운영을 마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되었다.

* (시간분리) 목적공항 교통량 조절을 위해 우리나라 출발 항공기 간 출발간격을 13분 일괄 적용하도록 운항하므로, 마지막 항공기는 최대 312분(5시간)가량 지연

□ ‘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’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, 홍콩 등 관련국가의 참여를 제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으로,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줌으로써,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(1대당 11분)에서 78분(1대당 3분)으로 약 70% 이상 감소시켰다.

○ 이에 따른 지상대기 중의 연료소모 감축량은 연간 1.45억원(월평균 약 12,090리터, 약 1.2천만원)을 절약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,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 후 불필요한 지상대기로 인한 기내대기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.

□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앞으로도 항공기 지연이 많은 국제 노선에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적극 개선하여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적기들의 정시운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	곽영필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	신 경 (044-201-4192)
			주무관	김규태 (044-201-4196)
	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	담당자	과 장	박주환 (053-668-0470)
			사무관	이진종 (053-668-0491)
			주무관	김우진 (053-668-0494)



기
준

시간분리 기법

여러 인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각 국의 관제 기관별로 분리 간격을 추가 적용하여 항공기 간 분리 간격이 증가하는 비효율 초래

※ 시간분리 적용 현황
(산야→홍콩) 5분 분리
(홍콩→대만) 5분 분리
(대만→일본) 10분 분리
(일본→한국) 13분 분리

출발지연 273분
(1편당 약 11.9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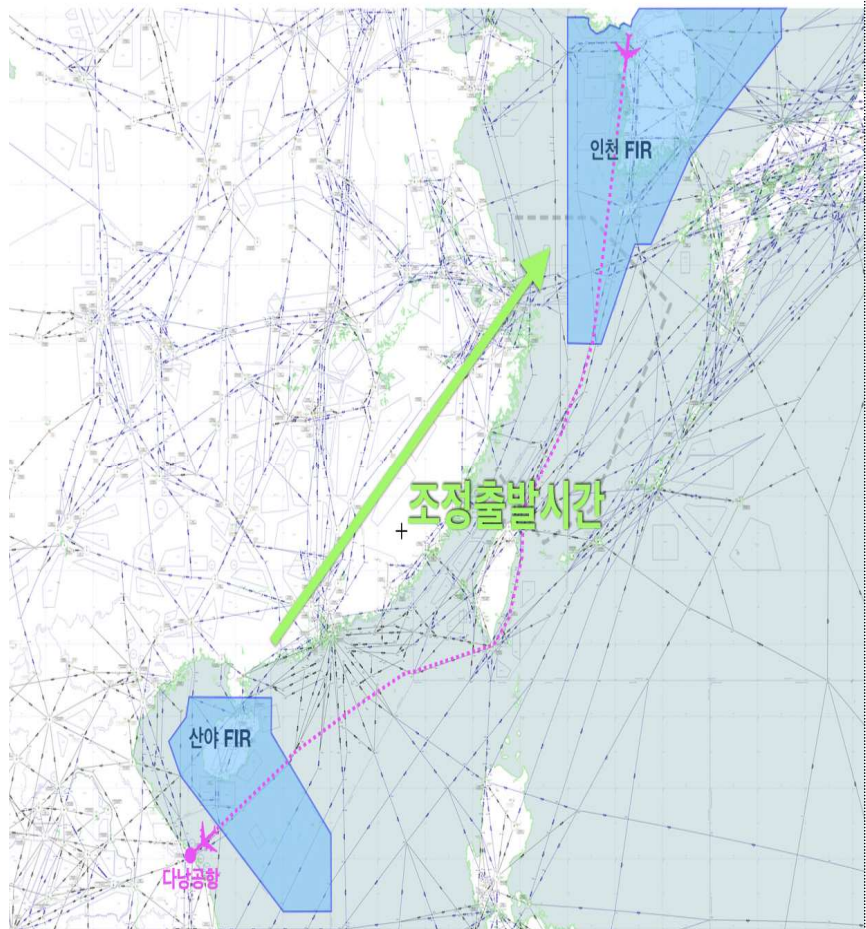


개
선

목적공항 도착
시간 배정 기법

관련국의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 공역의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산출하여 항공기 출발허가 발부, 불필요한 지연이 없어 효율성 증대

출발지연 78분
(1편당 약 3.4분)



참고 2

베트남 다낭行 항공교통량 추이

구 분	'19년	'22.12월	'23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일평균 (대)	30.2	15.3	21.4	21.7	21.4	22.9	23.3	23.6	24.4
전월 대비 증감률	-	17.7%	39.9%	1.4%	-1.4%	7.0%	1.7%	1.3%	3.4%
'19년 대비 회복률	-	50.7%	70.9%	71.9%	70.9%	75.8%	77.2%	78.1%	80.8%

